

News

금통위 "추가 인하 여지 '제한적'…양적완화 논의 필요"

한국경제

지난 5월28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금리인하 여력이 이전에 비해 제한적이라며, 비전통적 정책수단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엿보여…

코픽스 또 사상 최저…주담대 금리 ↓

한국경제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월 대비 0.14%포인트 떨어진 연 1.06%를 기록했다고 지난 15일 공시… 공시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내려…잔액 기준 코픽스도 4월 1.61% → 5월 1.55%,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1.31% → 1.26%

KB금융, 푸르덴셜 인수 마무리…금융위에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

매일경제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한 KB금융이 이달 중 금융위에 자회사 편입을 신청…승인 작업은 2개월 안팎이 걸릴 것으로 예상 KB금융이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편입 승인에 큰 결격 사유가 없을 것으로 예상…9월 1일자로 푸르덴셜생명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것을 목표

하나은행, 디스커버리·라임펀드 선지급 관심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은 조만간 정기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하나은행이 이달 중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투자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 여부를 결정할 지 관심 두 펀드를 판매한 주요 시중은행 대부분이 선지급을 결정…라임, 디스커버리 펀드 선지급 비율이 다른 은행들과 비슷한 수준인 50~51%선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흐름

삼성·교보·메트라이프, 책임준비금 크게 늘어…한화生 LAT 주목

디지털타임스

시장금리 하락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커져…금리확정형 상품 비중이 높은 대형사의 부담 가중…일부 외국계 보험사도 금리 민감도 급격히 늘 국내 생명보험사 1분기 책임준비금 전입액 5조6,357억원 전년 동기 4조1,058억원 대비 1조5,299억원 증가…삼성생명 1분기 전입액 2조원대, 교보생명 1조원대

공매도 금지 연장 VS "재개 필요"…금융당국, 8월 공청회 연다

연합뉴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두 차례 이상의 공청회를 통해 공매도 금지 효과 및 공매도 제도 보완점 등에 대해 시장과 소통할 예정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방안도 검토 중

1분기 증권사 순익 반토막… 거래 수수료는 늘어

조선비즈

금융감독원, "2020년 1분기 국내 56개 증권회사의 당기순이익이 5,274억원으로 전분기 보다 5,303억원(50.1%) 감소…"

1분기 중 수수료 수익은 2조9753억원으로 전분기 보다 4,229억원(16.6%) 증가… "거래대금 증가로 수탁수수료가 전분기보다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

교보證, 2천억 유상증자…자기자본 1조대로

매일경제

교보증권이 단행한 2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교보생명이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교보증권을 둘러싼 해묵은 인수·합병(M&A) 논란이 잠재워질 전망 교보증권 관계자, "영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순이익 창출 극대화는 물론 최대주인 교보생명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시장에 보여줬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주정치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